

민주 전남 경선 앞두고 곳곳 '이합집산'

컷오프 후보들 현역 의원 지지 선언 잇따라

정치적 선택법 따른 줄서기용 지적 적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선거구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별로 컷오프된 후보들의 경쟁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는 등 이합집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지 선언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에 집중되고 있어 결국 정치적 선택법에 따른 '줄서기용' 아니냐는 지

적이나오고 있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컷오프된 김병도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지역에 힘이 될 책임자는 서삼석 후보"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삼석 예비후보는 농어촌 문제, 인구감소 문제, 섬 발전 문제 등 지역 현안과

미래 어젠더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후보"라며 "농도 전남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량감과 경륜을 갖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 컷오프된 조재환·최영호 예비후보도 이날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농어촌과 농축어민을 대표할 상임위원장이 돼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더 크게 변화시킬 김승남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을 살릴 '힘있는 3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며 "김승남 예비후보가 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장이 돼 더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도 "학생운동 시절부터 함께해 온 김승남 예비후보의 진면목을 잘 아는 동지로서 제가 제시한 지역 비전을 함께 실현할 책임자"라며 "김 예비후보가 호남을 대표하는 3선 국회의원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후보들의 지지 선언에 대해 굵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중론이다.

각 선거구별 경선 후보들이 단재장, 지방의원 등 상이한 정치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컷오프 후보들이 향후 지방선거 등을 감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조재환·최영호 예비후보의 김승남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당내 경쟁과 지역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구시대 인물들과 과거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던 이들의 끝없는 권력용의 증거"라며 "구대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여러 지역이 맞물려 있는 만큼 지방선거 등에 대비해 밀바닥 다지기를 위한 지지 선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민주당 경선에서 어느 정도 파급력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 신속·적극 대응”

김지사, 비상진료체계 누수 없도록 관리 철저 지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중양부처의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 기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누수 없도록 모든 실·국이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해 “최근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규제 완화는 진일보한 것이다. 그동안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주말주택 역시 인구소멸 시대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도시도 포함되도록 의견을 적극 제시해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았는데 전남도가 세종시와 함께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0.72명으로 워낙 낮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멀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돌봄학교 등 돌봄에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시·군과 함께 발표한 ‘출생수당’ 후속조치도 서둘러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김 지사는 “생명권을 담보로 투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사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아직 도민들 진료에 지장이 없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길어지면

의료 공백이 올 수도 있으므로 모든 실·국이 당면 사항이라 생각하고 비상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해 도민 건강을 지켜나가자”고 독려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김 지사는 “도교육청, 시·군과 함께 노력해 7개 시·군이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이 지정됐다. 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혁신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자”며 “늘봄학교도 초등 425개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등 전남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설에서도 체험학습이 이뤄지도록 공간과 인력을 제공하는 등 교육청과 잘 협조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형 청년마을’ 5개소 신규 공모

전남도는 청년 활동공간 조성 및 향도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남형 청년마을 5개소를 신규 공모한다.

전남형 청년마을은 청년이 주축이 돼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며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청년마을 1개소 당 2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문화 활동, 지역살이 체험,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지역을 탐색하고 도내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희망하는 청년 단체·기업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는 5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장 정책회의를 가졌다.

<전남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since 1978

The 44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4. 3.11. 월 ~ 3.13. 수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주최 Jindo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22대 총선 프리즘

송갑석, 서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예비후보(광주 서구갑)는 5일 '서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남구에 단 한 곳뿐"이라며 "서구에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른 아침 '아동병원 오픈런'을 하지 않도록 어린이 의료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광주 반려인구 30만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반려동물 놀이터는 광주시 전역을 통틀어 1곳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시작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강 기자

국힘 광주시당, 총선 1호 공약 '5·18정신 헌법 수록'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총선 1호 공약으로 확정했다.

주기한 광주시당 위원장은 5일 광주 8개 선거구 후보자들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단계의 한 획을 담당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로 존중하고 광주가 민주주의 성숙에 공헌한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며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 광주시당 총선 1호 공약으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앙 공약 개발 단계 요청, 전달 최종 확정됐다"며 "오늘 정신은 특정세력, 특정정당 전유물이 돼선 안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자유민주주의 역사성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 발전을 이끌 총선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래와 희망이 있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 머무르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광주 등 민주당 후보와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성강 기자